



인왕제색도는 경재 정선의 76세 때 그림입니다. 인왕(仁王)은 서울에 있는 인왕산을 말하는 것이고 제색(霽色)이란 큰 비가 온 뒤 맑게 갠 모습을 뜻합니다. 즉 비 개인 인왕산의 모습입니다. 인왕산은 산 전체가 백색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바위산입니다. 그런데 백색화강암을 그리려면 흰색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온통 진한 묵으로 그렸습니다. 이것이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그림을 보다보면 시선이 어느덧 자연스럽게 우측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집으로 모아집니다. 이것은 화가가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림의 주제이자 목적입니다.

그림의 집은 사천 이병연의 집입니다. 사천과 경재는 10대부터 스승인 김창흠 아래 동문수학한 벗이었습니다. 각각 81세, 84세까지 장수하면서 한동네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자란 형제 같은 사이였습니다.

경재가 이 인왕제색도를 그릴 당시, 자신의 피붙이와 다름없는 사천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재는 60여년을 형제처럼 지내온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심정이었을까요.

인왕제색도는 사천 이병연이 어두운 비구름이 개이듯 병이 나아 저 당당한 인왕산처럼 다시금 웅장하고 굳건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려낸 그림입니다. 경재가 사천의 집 주위를 수목들이 호위하듯이 빙 둘러 그려낸 것만 보아도 사천이 병을 이겨내고 당당한 소나무처럼 일어나길 바라는 경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뻘 그랬지 ▶ ‘냉차’ 를 아시나요?
 지금처럼 냉장고를 집에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때 큰 얼음 동동 떠 있는 리어커의 냉차통에서 냉차를 한 컵 사서 먹으며 한여름 더위를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보리 냉차, 미숫가루 냉차에 비싼 설탕보다는 사카린이라는 화학제품을 넣어 달달하게 만들어 팔았지만 그때는 그것을 가리며 사 먹을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냉차 급하게 먹다가 두통으로 잠시 괴로워 하던 그 시절, 이제는 싸하도록 그림습니다.

| | | |
|--|--|--|
|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
| 제9권 14호 |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 2007년 4월 8일 |
| ☎ 369- 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 | www.calvary.org.nz |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승리하신다



내 이름은 아나 피델리아 키로트. 육상 800미터에서 한 때 39연승의 기록을 세웠던 쿠바의 여자 선수입니다. 내가 단거리 육상 선수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을 때 카스트로 의장과 특별접견이 이루어졌고, ‘쿠바의 별’로 추앙을 받을 만큼 조국에 영광을 안겨다 준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 1월 어느 날. 우리 집 부엌에서 취사용 난로가 폭발했고, 나는 한 순간에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숯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델 카스트로 의장이 병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의장님의 귀에다 대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의장님, 다시 뛰겠어요!” 그러나 의장님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내 말을 믿는 사람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나의 하체, 육상선수의 생명인 하체에는 큰 상처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부르짖으며 다시 일어나 재기할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한 1995년. 나는 스웨덴 여태보리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여자 800미터에서 우승! 시상식장에서 조국의 국기를 울리고 상을 받았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그 눈물은 감사와 기쁨의 눈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는 약속을 믿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1년 후, 1996년 미국 아틀란타 올림픽에 다시 출전했습니다. 이미 33세의 나이에다 숯 덩어리가 되었던 육신을 안고 출전한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스타트라인에 섰을 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4년 전 재기 불능 판정을 받았던 나의 가는 길을 밝혀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스타트를 알리는 신호가 터졌을 때, 나는 주님을 향하여 달리듯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는 다시 800미터에서 금메달을 따 냈습니다. 모두들 “인간승리! 인간승리! 만세!”를 외쳤지만 그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고 주님의 승리였습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교회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영의 살도 빠진다.

◀인품따라 행하기▶
안 될 이유가 있으면
될 이유도 있다.
될 이유만 말하라.

주일 예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주일찬양

| | | |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다같이 |
| *찬송 Hymn | 150장 | |
|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 10(시 27) | |
| 기도 Pray | | 윤주야 권사 |

성찬식

분병분잔

| | | |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마태복음 28:1-10 | 인도자 |
| 성가대 찬양 Choir | | 나무십자가 성가대 |
| 설교 Sermon | 갈릴리에서 만나자 | 김성국 목사 |
| 특송 Hymn | | 50여선교회 |
| 헌금기도 Offering Pray | | 인도자 |
| 응답송 Response Song | 여기에 모인 우리 | 다같이 |
| 축도 Benediction | | 김성국 목사 |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594

총액:\$312,225

◆4월 예배위원◆

| 일자 | 기도 | 응답송 | 안내 |
|----|-----|-----|--------------|
| 1 | 이금선 | | 본당:권사 |
| 8 | 윤주야 | 목회자 | 현관(1)김교섭 최재학 |
| 15 | 이재영 | | 현관(2)장현중 정덕수 |
| 22 | 임병수 | | 새교우:이광희 이근평 |
| 28 | 임혜자 | | 윤주야 장유진 |

◆4월의 교회력◆

| 주 일 | 예배와 모임 |
|-----|----------------------------------|
| 1 | 종려주일 성금요연합예배(6) 아동부캠프(6-8) |
| 8 | 부활주일 |
| 22 | 여선교회월례회 |
| 29 | 남선교회월례회. |

| | |
|--|--|
| 『교회 생활』 2007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 『교회 등록』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아동,학생: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수요 7:00 pm |

1.교우소식

<다신 만난 반가움> 사카시다 키쿠오 집사. 최기향 집사

☒ 3 Seaton Rd. Murrats Bay

*4년전 응답송 부를 때 떠나던 서운함이 4년 후 만남의 기쁨으로..

<산모 간호 후 귀국> 박정자 집사. 득남한 둘째 딸(호주) 돌보아 준 후 귀국

*어느 새 3 손주를 거느린 가문의 큰 할머니 되셨습니다

2.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예수 안 믿어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었다면 살아가는

희망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부활의 기쁨을 떡을 나누며 갖습니다

3. 부활절 계란:주님 부활의 의미를 봉사부에서 계란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4. "고난주간 금식헌금 \$5" :북한 탁아소 어린이 돕기

* "스스로 결심하여 금식하는 우리, 타의로 굶는 북한어린이" . \$50 이면

탁아소 한 곳 어린이들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다가에 금식하며 더 배불렀습니다

5. 안식년: 김성국 목사(4월 10일-7월 13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연락처 ☎ 010-6346-0191 ☎031)674-2660)

6.아동부 캠프 귀가:오늘 오후3시에 캠프장에서 부모님들의 자녀 Pick Up 부탁드립니다 (187 Red Hills Rd. Taupaki 감람원 기도원)

7.갈보라동교회 산행(예교) <일시> 21일(토) Totara Park & Botany Garden

*정글같은 수목림,만여종의 꽃과 새...1시간 동안 황홀히 즐길 수 있습니다

◀착한 시인들▶ 새들의 무덤은 없다

우대식

숲속, 더 높은 산정 어디에서도
바람에 쓸린 뼈 한 조각 찾을 수 없다
새 들어 살던 하늘 한 조각 비워 두었을 뿐
이 지상에서 꿈꾸지 않았으므로
아프지 않은 죽음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
바람보다 몸이 가벼워질 때
지워질 뿐
쓸쓸한 추락으로 땅 위에 몸을
박지 않는다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와
화전으로 땅을 갈며 또 다시 그 위에
무덤을 만들지만,
새들의 무덤은 없다

간간이 담장 아래에 죽어있는
새를 봅니다. 일생을 하늘과 나
뭇가지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그렇게 자기를 버렸습니다. 날
아다니다 쉬게 해준 나무에 보
답하는 듯 뿌리 근처에서 수목
장으로 영양분이 되어 주고 있
었습니다.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것, 자유
로운 자들만이 누리는 미련 없
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주님도 빈 무덤만 남기고 홀
적 부활 하셨습니다. 율법에 자
유로웠던 주님이 죽음에도 그
렇게 자유로웠습니다.